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융복합적 공감역량에 관한 연구

백경화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Convergent Empath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urse

Kyoung-Hwa Bae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요 약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의 이해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1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소통력($r=.82, p<.001$)과 대인관계 이해($r=.84, p<.001$)는 공감역량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습참여의 적극성, 의사소통력 및 대인관계 이해였으며, 이들은 공감역량을 80.6%의 높은 수준으로 설명하였다($F=29.41, p<.001$).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습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계별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공감역량, 의사소통, 대인관계, 간호실습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understanding on empath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ur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2 second-year nursing students in a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8.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 22.0 program. Factors affecting empathy we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actice, communication skills, and 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mpathy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tep-by-step empathy education program into the curriculum tha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device that can induce active participation in practice and contribute to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Nursing Student, Empathy,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ing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wa Baek(khbignite@gch.ac.kr)

Received June 11,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June 24,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뛰어난 첨단과학기술인 하이테크와 환자 중심의 감성적 접근 측면의 하이터치의 융합형태로 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다[1]. 생체유전학,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기술혁신이 보건의료계를 주도하겠지만 인간을 중심에 둔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어[2] 기술적인 혁신과 더불어 인본주의에 입각한 창조적 사고나 공감능력과 같은 영역은 미래 보건인력의 필수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주어지는 돌봄을 특성으로 하는 간호는 더욱 많은 인간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감성적인 행위이기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였다[3].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적인 간호와 내면의 공감과 보살핌으로 무장한 치유적인 관계형성이 간호의 속성이자 좋은 간호의 본질임은 이미 알려져 있고 공감역량 개념의 속성은 좋은 간호의 본질과 일맥상통 하는 바[4,5]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실습 환경에서도 공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인간중심 간호의 핵심 요소인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과 독특한 의미를 이해하며 인지한 바를 타인에게 지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으로[6] 환자와의 상호적인 신뢰단계를 촉진하고 이해를 공유하는 특히 돌봄 관계에서는 기본적인 품질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간단히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뛰어넘어, 대상자의 감정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영역에 대한 이해까지도 포괄하는 소통의 기술이다[7]. 병원 현장에서 공감역량은 환자의 안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대상자와 의료인이 서로 긍정적 치료관계를 맺도록 하므로[8] 환자의 질병회복과 과정에서의 만족도에 일조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치료과정에서 정확성을 높여 병원 과실을 감소시키므로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게 된다[7]. 공감역량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 문헌에 따르면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환자의 인식은 의료진의 공감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였고[6], 간호대학생의 공감수준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9]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경험하는 데서 오는 개인적 고통 영역의 공감은 오히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0]. 대부분의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공감은 주로 교양이나 선택교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어[6] 전공교과목에서의 공감역량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적 이해는 직업 존중감과 고객지향성을 높이고[11], 간호사의 공감정도는 간호사의 삶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12] 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아가 임상간호사의 업무 부적응이나 높은 이직율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간호현장의 난제를 공감적 요소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문제 해결에 있어 기본이 되는 간호역량으로 팀원과의 대인관계 및 공감능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다학제간 실무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력은 대상자 관리를 향상하고 건강증진 및 비용절감에 대해 효과적이다[13].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력은 공감역량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14],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9]. 실습 속에서 간호학생들의 효율성 높은 의사소통은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대상자들을 공감하는 영향력 있는 과정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정보교류가 일어나 교육목표의 달성은 물론 질적인 간호를 훈련 받을 수 있으므로[15]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감역량을 활용하여 공감적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대인관계는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어 근간이 되며 대인관계 속에서 개인은 안정을 찾고 만족감을 성취한다[16].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이상적인 정보교류는 치료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대인관계에서 나오며 양질의 간호관리가 가능해진다. 공감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나[17] 현실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부정적인 눈치 행위나 대인불안을 조기에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18]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인 2학년 대상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통해 다각도의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교내실습과 현장실습이 연계된 대인관계 훈련을 위한 체계적 증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공감역량은 개인의 적응과 성장, 학업적 목표달성, 간호역량 강화 등의 자기 발전과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공동체적인 능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이다[14]. 공감은 간호현장에서 일어나는 개인 간 그리고 집단 내 갈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통으로 인한 갈등요인 해소와 긍정적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융복합 개념으로서 반복적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역량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교양교과목을 개설하거나 비교과과정의 단기적 공감 프로그램이나 의사소통 프로그램 내 공감적 측면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9, 19],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력과 같은 간호역량의 매개 효과로 공감역량을 살펴 본 연구[15],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역량을 파악한 연구[20]로 공감역량을 핵심변수로 하여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역량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 및 공감역량을 조사하고 공감역량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는 것으로 추후 교육과정 특히 전공이론과 전공실습 교과과정에서 공감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내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 이해가 공감역량에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 및 공감역량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 이해 및 공감역량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 이해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내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 이해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G시 소재의 일개대학 간호학과에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교내에서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 참여한 148명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 140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대상자 수 결정은 G*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독립변수 10개로 입력했을 때 회귀분석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는 121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분석단계에서 미완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22명의 자료를 가지고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력

의사소통력은 Hur[21]가 개발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포괄적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척도(GICC-15)로 측정하였다. 총점은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Hurl[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3.2 대인관계 이해

Marshall[22]이 개발하고 Kwon[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개의 문항,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11~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won[23]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3.3 공감역량

Lee[24]가 개발한 공감역량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대상자를 고려해 수정 후 측정하였다. 총 12개 문항, 5점 척도로 총점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공감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4 자료분석방법

SPSS WIN 22.0 Program으로 수집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 및 공감역량의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 및 공감역량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다.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63±2.30세이었으며, 여자가 76.2%, 남자가 23.8%이었다. 입학동기는 타인의 권유로가 46.7%, 취업을 고려해서가 27.1%, 스스로 결정해서가 26.2%순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있어서 적응도는 보통이 68.0%로 가장 많았고, 잘한다가 18.9%, 잘못한다가 13.1%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48.4%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만족 43.4%, 불만족이 8.2%이었다. 실습수업 참여도는 보통 49.2%, 소극적 26.2%였으며, 적극적인은 24.6%이었다. 실습수업 만족도는 58.2%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만족 39.3%, 불만족이 2.5%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
Age (yr)	M±SD	21.63±2.30
Gender	Female	93(76.2)
	Male	29(23.8)
Religion	Yes	42(34.4)
	No	80(65.6)
Motivation for admission	Recommendation of others	57(46.7)
	Employment	33(27.1)
	One's own will	32(26.2)
Adaptation of Nursing	Good	23(18.9)
	Moderate	83(68.0)
	Wrong	16(13.1)
Nurs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53(43.4)
	Usually	59(48.4)
	Unsatisfaction	10(8.2)
Participation in Practice	Active	32(26.2)
	Common	60(49.2)
	Passive	30(24.6)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48(39.3)
	Usually	71(58.2)
	Unsatisfaction	3(2.5)

3.2 대상자의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와 공감역량 정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55.63±8.81점, 대인관계 이해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4.01±7.49, 공감역량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46.50±7.2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Average in Variabes (N=122)

Variable	M±SD	Range
Communication competence	55.63±8.81	15 - 75
Interpersonal understanding	44.01±7.49	11 - 55
Compassionate competence	46.50±7.29	12 - 6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Compassionate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1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mpassionate competence	
		M±SD	t or F(p)
Gender	Female	46.92±7.08	1.15 (.251)
	Male	45.13±7.90	
Religion	Yes	47.14±7.98	.70 (.483)
	No	46.16±6.92	
Motivation for admission	Recommendation of others	45.42±6.44	1.31 (.273)
	Employment	47.90±7.45	
	One's own will	46.96±8.41	
Adaptation of Nursing	Good	47.21±8.34	.214 (.808)
	Moderate	46.20±7.26	
	Wrong	47.50±7.29	
Nurs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46.90±7.19	1.51 (.224)
	Usually	45.59±7.38	
Participation in Practice	Unsatisfaction	49.70±6.84	1.66 (.194)
	Active	44.78±6.62	
	Common	46.60±7.07	
Practice Satisfaction	Passive	48.13±8.19	.65 (.520)
	Satisfaction	46.85±6.43	
	Usually	46.08±7.87	
	Unsatisfaction	50.66±6.35	

3.4 대상자의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와 공감역량 간의 상관관계

공감역량은 의사소통력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82, p<.001), 대인관계 이해와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84, p<.001).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 이해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82, p<.001)(Table 4).

3.5 대상자의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 이해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

Table 4.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Compassionate competence (N=122)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understanding	Compassionate competence
	r(p)	r(p)	r(p)
Communication competence	1		
Interpersonal understanding	.82(<.001)	1	
Compassionate competence	.82(<.001)	.84(<.001)	1

대상자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1단계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의사소통력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는 대인관계 이해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명목변수, 서열변수는 가변수 처리 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분석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1.793으로 2에 가까우므로 변수들의 독립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5~6.17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1단계 모델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1.09, p=.368), 공감역량을 11.7% 설명하였

다. 2단계 모델에서 의사소통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모델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0.23, p<.001), 설명력은 72.6%로 증가하였다.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β=-.13, p=.033), 종교가 있는 그룹(β=.10, p=.048), 의사소통력(β=.81, p<.001)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델에서는 대인관계 이해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80.6%로 증가하였으며 회귀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9.41, p<.001).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습 참여도에서 적극적하는 그룹(β=.13, p=.023), 의사소통력(β=.35, p<.001), 대인관계 이해(β=.56, p<.001)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교내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 및 공감역량의 관계성과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 이해가 공감역량에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

Table 5. Factor Influencing Compassionate competence

(N=122)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SE	t	p	B	β	SE	t	p	B	β	SE	t	p
(constance)	63.05		9.71	6.49	<.001	16.91		6.20	2.72	.007	9.30		5.36	1.73	.086
Age	-.54	-.17	.34	-1.60	.113	-.41	-.13	.19	-2.15	.033	-.24	-.07	.16	-1.48	.141
Gender (ref: male)	.71	.04	1.74	.41	.682	-.87	-.05	.98	-.89	.373	.10	.00	.84	.12	.901
Religion (ref: no)	.96	.06	1.42	.67	.498	1.59	.10	.79	2.00	.048	1.20	.07	.67	1.78	.077
Motivation for admission (ref: one's own will)															
Recommendation of others	-.82	-.05	1.79	-.46	.646	-.61	-.04	1.00	-.61	.543	-.41	-.02	.84	-.49	.623
Employment	.82	.05	1.85	.44	.659	-.42	-.02	1.04	-.41	.682	-.43	-.02	.88	-.49	.621
Adaptation of Nursing (ref: wrong)															
Good	.78	.04	2.82	.27	.782	.78	.04	1.57	.49	.619	.16	.00	1.33	.12	.904
Moderate	.76	.04	2.44	.31	.756	.50	.03	1.36	.36	.713	.18	.01	1.15	.15	.875
Nursing Satisfaction (ref:unsatisfaction)															
Satisfaction	-4.79	-.32	3.16	-1.51	.132	-2.30	-.15	1.77	-1.29	.198	.43	.03	1.55	.28	.779
Usually	-5.93	-.40	3.05	-1.94	.054	-2.15	-.14	1.72	-1.25	.214	.97	.06	1.53	.63	.527
Participation in practice (ref: passive)															
Active	1.97	.11	2.07	.95	.343	1.12	.06	1.16	.96	.338	2.30	.03	.99	2.30	.023
Common	1.93	.13	1.67	1.15	.249	1.19	.08	.93	1.27	.205	.94	.06	.79	1.18	.238
Practice satisfaction (ref: unsatisfaction)															
Satisfaction	-1.83	-.12	4.63	-.39	.694	2.05	.13	2.60	.78	.432	.11	.00	2.22	.05	.959
Usually	-3.19	-.21	4.47	-.71	.476	2.13	.14	2.52	.84	.401	-.04	-.00	2.15	-.02	.983
Communication competence						.67	.81	.04	15.41	<.001	.29	.35	.06	4.28	<.001
Interpersonal understanding											.54	.56	.08	6.63	<.001
R²	.117					.726					.806				
F(p)	1.09(.368)					20.23(<.001)					29.41(<.001)				

의 교육과정 마련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력은 75점 만점 중 55.6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4학년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검증연구[9]에서 대조군의 의사소통 점수인 54.9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고학년 대상자의 의사소통력 연구[15]에서는 56.2점으로 본 연구의 의사소통력 점수보다는 높게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여 대상자의 학년별 특성과 의사소통력 차이를 본 연구[2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학년에서 보다는 3,4학년인 고학년에서 의사소통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실습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한 의사소통 기술의 훈련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이나 대상자의 다른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여 학년별 의사소통력을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이해 점수는 55점 중 44.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2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수업에서 직업기초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전 점수보다는 높았으나 프로그램 적용 후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28]. 간호대생의 대인관계 이해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대인관계 이해도보다는 낮았다는 연구결과[27]에서 보여주듯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대인관계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학년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실습 입문과정으로서의 대인관계 중점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 점수는 60점 만점 중 46.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대상군인 간호학과 전 학년 201명을 대상으로 한 Park[26]의 연구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8시간의 비폭력대화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Lee등의 연구[9]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18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공감역량을 측정된 연구들[29,30]에서는 공감역량 점수가 각각 42.3점, 43.0점으로 본 연구의 공감역량 점수인 46점 5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역량을 조사한 연구들마다 공감역량의 수준은 상이하였고 오히려 학생의 공감역량 수준은 임상간호사가 되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31]. 이는 임상에서 겪게 되는 대인관계적 갈등이나 소통에 대한 어려움에서 파생될 수 영향이라 여겨져 공감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면모를 다각도로 선 체험할 수 있

는 장치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다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공감능력이 발휘될 수 있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에 차이가 없었으나 공감역량은 성별과 나이[26],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32]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바 간호대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 및 공감역량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위생학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33]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17]에서도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및 공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들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34,35], 예비간호사를 대상으로 3주간 시행한 인지행동치료 기반 공감훈련 프로그램은 공감변인인 공감역량과 대인관계 반응지수를 높이고 행동변인이 되는 의사소통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19]. 성숙된 감정이입, 지지적 관계의 핵심적 요소, 자기효능,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 등은 간호사의 공감역량에 대한 속성으로 밝혀진 바[36], 공감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적용한다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능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1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라 공감능력은 차이가 없었으며[20],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역량을 연구한 Lee[30]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나이, 임상경력,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본 연구의 2단계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일반적 특성 중 나이와 종교는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으므로 일반적 특성을 세분화하고 단독 변수화 하여 공감역량을 통합적으로 고찰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의사소통력이 공감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은 공감변인 뿐 아니라 의사소통력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며[19], 공감 강화 또는 의사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상호간 긍정적 향상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9]가 이를 뒷받침한다. 간호대학생은 입문에서

부터 교내실습을 통해서 절차를 활용한 일률적인 교육을 접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간호상황을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며 행위로 옮겨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3단계로 대인관계 이해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실습참여의 적극성, 의사소통력 및 대인관계 이해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8시간의 공감 대화기법 훈련을 받은 대상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으며[26], 공감역량은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향한 직접적인 간호를 수행하면서 질병회복과 건강증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와의 관계형성에 특히 중요하다 하였다[36]. Park[9]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력은 공감역량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으므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기술,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영과 공감적 인식 등의 공감의 하위영역의 특성을 활용한 융복합적 공감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내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력과 대인관계의 이해가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는지를 본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 및 공감역량 간에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극적인 실습 참여,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이해로 공감역량을 80.6%로 설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공감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요소를 고려한 단계별 공감역량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반복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J. Naisbitt., N. Naisbitt & D. Phillips. (2001). High tech/high touch: technology and our search for meaning. Naperville IL: Nicholas Brealey Publishing, p288.

[2] R. Schulz., H. W. Wahl., J. T. Matthews., A. De Vito Dabbs., S. R. Beach & S. J. Czaja. (2015). Advancing

the aging and technology agenda in gerontology, *Gerontologist*, 55(5), 724-734.
DOI : 10.1093/geront/gnu071.

[3] S. H. Tak. (2018). Gerontological nurs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 160-165.
DOI : 10.17079/jkgn.2018.20.s1.s160.

[4] E. K. Lee., S. B. Kwon., H. G. Cha & H. J. Kim. (2017). The good nursing of experienced as a nurs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2), 305-317.
DOI : 10.21097/ksw.2017.05.12.2.305.

[5] G. Lee & Y. Tak. (2019). A concept analysis of the empathic capacity of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651-674.
DOI : 10.22251/jlcci.2019.19.5.651.

[6] T. Levett-Jones., R. Cant & S. Lapkin. (2019).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empathy educatio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75, 80-94.
DOI : 10.1016/j.nedt.2019.01.006.

[7] J. S. Won et al. (2016).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ravel Medicine and Global Health*, 4(1), 3-11.
DOI : 10.20286/ijtmgh-04013.

[8] J. H. Cho & K. W. Seo. (2018).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resilience of clinical nurse, *Journal of Wellness*, 13(4), 51-60.
DOI : 10.21097/ksw.2018.11.13.4.51.

[9] M. J. Lee., Y. J. Jeong., J. Y. Kang., & H. J. Na. (2019). The effect of non-violent communication program on nursing graduate students on empathy,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2), 425-440.
DOI : 10.22143/HSS21.10.2.31.

[10] J. H. Hee & S. J. Boo. (2019). Factors affecting levels of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1199-1214.
DOI : 10.22151/jlcci.2019.19.5.1199.

[11] H. Jeong. (2018).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job-esteem and empathy on customer orien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599-607.
DOI : 10.15207/JKCS.2018.9.10.599.

[12] K. J. Chun., J. H. Choi., Y. R. Kim., S. O. Lee., C. H. Chang & S. S. Kim. (2017). The effects of both shift work and non-shift work nurses' empathy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3), 99-108.
DOI : 10.5392/JKCA.2017.17.03261.

[13] J. H. Park., & S. K. Chu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7698–7707.
DOI : 10.14257/AJMAHS.2017.10.90.
- [14] M. S. Chu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DOI : 10.5977/jkasne.2014.20.2.332.
- [15] Y. E. Kwon & S. Y.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967–981.
DOI : 10.22251/jlcci.2019.19.3.967.
- [16]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17]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18] S. K. Hwang., & Y. J. Lee. (2015). Inter 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517–526.
DOI : 10.5977/jkasne.2015.21.4.518.
- [19] H. Y. Kim., J. M. Kim & M. Y. Lee. (2016). Development and its effect of empathy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the student nurs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6(4), 567–594.
- [20] M. O. Chae. (2016).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303–311.
DOI : 10.5762/KAIS.2016.17.4.303.
- [21]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2] Marshall, L. C.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acy, teamwork, effort and patient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23] E. M. Kwon. (2010). *The Correlation among team efficacy, interpersonal understanding,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 and team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24] Y. J. Lee. (2014). *Development of the compassionate competence scale for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25] J. K. Cha., H. H. Kim. (2017).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applying Gagne's nine events of instruction and video clips upon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15–123.
DOI: 10.14370/jewnr.2017.23.2.115
- [26] J. A. Park. (2018). Level of empathy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781–798.
DOI: 10.22251/jlcci.2018.18.22.781.
- [27] S. J. Yune., E. Y. Lee & K. H. Park. (2018).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interpersonal understanding,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 and team efficacy of medical students and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2), 369–378.
DOI: 10.21742/AJMAHS.2018.02.37.
- [28] K. H. Baek., H. E. Seo & J. H. Cho. (2019).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convergence fundamental nursing program with empowering vocational basic competenc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8), 303–311.
DOI: 10.14400/JDC.2019.17.8.303.
- [29] H. Y. Kim., K. H. Nam & S. H. Kwon. (2017).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inal care stress and performance for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4), 253–263.
DOI: 10.14475/kjhpc.2017.20.4.253.
- [30] H. K. Lee. (2015). Converged influencing factors on compassion compete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15–22.
DOI: 10.15207/JKCS.2015.6.5.015.
- [31] J. Ward., J. Cody., M. Schaal & M. Hojat. (2012). The empathy enigma: an empirical study of decline in empath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8(1), 34–40.
DOI: 10.1016/j.profnurs.2011.10.007.
- [32] N. H. Kim. (2018).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735–744.
DOI: 10.21742/AJMAHS.2018.06.84.
- [33] S. J. Kim & H. H. Kim. (2013).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3(3), 304–313.
- [34] H. M. Kim. (2009).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4), 399–408.
- [35] C. Y. Jeong & Y. S. Seo. (2017). Effect of the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271–280.

DOI: 10.14400/JDC.2017.15.5.271.

- [36] G. Y. Lee & Y. R. Tak. (2019). A concept analysis of the empathic capacity of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651-674.

DOI: 10.22251/jlcci.2019.19.5.651.

백 경 화(Kyoung-Hwa Baek)

[초록]



· 200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부정맥 간호, 심혈관질환

간호, 간호시뮬레이션

· E-Mail : khbignite@gch.ac.kr